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 돌아보는 계기됐으면”

‘기억하라 가장 귀한 나무로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를 ‘고난 주간’이라 한다. 사순절 시기(40일) 가운데 부활절 하루 전까지로, 올해는 25일부터 30일까지다. 천주교신자들과 기독교 성도들은 이 기간 경건하고 엄숙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묵상한다.

고난주간과 맞물려 십자가를 모티브로 한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상운(바르톨로메오) 조각가가 광주가톨릭 평생교육원 지하1층 ‘갤러리 현’에서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전시가 그것. ‘기억하라 가장 귀한 나무로다’라는 주제는 십자가의 소중함과 의미를 일깨운다.

이 작가는 전시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이 십자가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어떤 것인지 한번쯤 생각해 보는 계기 됐으면 한다”고 했다.

십자가는 천주교든 기독교든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다. 이 작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

르라’는 말씀은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더불어 살아가려는, 다시 말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뜻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를 열게 된 것은 자선전시 바자회가 계기가 됐다. 작가는 에콜로르 장애인 학교와 병원을 돕기 위한 활동 등을 십수년 전부터 해왔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은 모두 350여 점. 작가가 10여 년에 걸쳐 만들거나 수집한 십자가가 대부분이다.

“자선전시 판매를 위해 도마나 접시 등을 만들다 보면 자투리가 나옵니다. 그것을 토대로 십자가를 만들고, 또 하나는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들이 성당에 반납한 십자가를 활용해 제작하기도 했지요.”

전시작 가운데는 여러 분당에서 반납한 십자가를 작가 자신이 만든 십자가와 결합한 작품도 있다. 목주에 달린 작은 십자가를 수거해 만든 작품이 그런 예다. 작가가 강이나 산에서 주워 온 의미있는 돌 위에 십자가를 올려 놓은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십자가작

이상운 조각가 ‘십자가’ 전

27일까지 광주가톨릭 평생교육원 버려진 나무 등 활용 350여점 전시

품이다.

그는 “집 짓는 자들이 내버린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데, 그 위에 목주 십자가를 올린 작품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확히 언제부터 그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됐을까. 표면적으로 자선바자 전시를 위해 십자가를 만들기 시작했다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

“예전에 다니던 산길에서 우연히 떨어져 나온 십자가 모양의 나뭇가지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득 나뭇가지에 예수님의 못 박힌 상처들이 선명히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 십자가를 버릴 수 없어 집에 가져와 걸어두었던 게 오늘에 이르렀죠.”

전시를 진행하기까지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다. 가깝게는 가족들의 관심과 지지가 컸다. “성지순례 갔을 때 현지 성당이나 기념품 가게에 들러 수집한 십자가들이 전시에 많이 활용됐다. 작가에 따르면 지금까지 아르메니아를 비롯해 조지아, 아프리카, 남미의 여러 국가를 갔다 왔고, 그곳의 십자가가 다수 전시에 포함됐다.

전시실에서 만나는 십자가는 다양하다. 과장을 한다면 이 세상 모든 십자가는 다 진열돼 있는 것 같다. 오래된 나무 십자가에 철사로 엮어 만든 십자가 같은 못 박혀 죽음을 당한 예수님의 고통을 상징한다.

씩어가는 나무 위에 세워진 십자가를 통해서는



이상운 조각가

새 생명의 희망과 부활의 소망을 느낄 수 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성경 말씀이 연상되기도 한다.

전시는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는 ‘기억하라 가장 귀한 나무’로 성당의 폐성물함 등에서 수거한 부서지거나 부식된 십자가와 목주 등으로 만든 십자가다. 성주간 시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게 하는 ‘낮 12시, 어둠이 온 땅에’, ‘나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잔 거두어 주소서’ 등을 볼 수 있다.

2부 ‘나무에서 묶인 죄악, 나무로써 푸시었네’는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나’, ‘왼 손목이 부러진 예수’ 등의 작품이 관람객을 맞는다.

3부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은 앞서 언급한 산과 계곡에서 가져온 돌과 나무를 십자가와 함께 결합한 작품이 주를 이룬다.

마지막 4부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의 십자가’는 장례 이후 가족들이 분당에 가져온 십자가를 토대로 만든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분당으로 들어온 십자가’에서는 예수님 사랑과 십자가를 묵상했을 어는 이름없는 신자의 마음이 읽혀진다.

한편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원장인 최윤복 야고보 신부는 “바르톨로메오 형제님의 손길로 되살아난 십자가와 세계 각국의 다양한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분들이 인류 구원을 위해 높이 매달린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상운 조각가의 십자가전 ‘기억하라 가장 귀한 나무로다’가 오는 27일까지 광주가톨릭 평생교육원 갤러리 현에서 열린다.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싱그러운 멜로디와 함께 ‘봄의 여행’

정기연주회, 30일 광주예술의전당

“나를 깨는 처녀는 언덕으로 다니며/ 고운 나를 찾나니/ 어여쁘다 그 손목”(현재명 ‘나를 깨는 처녀’ 중)

옛 가곡과 재즈 등을 합창으로 편곡해 듣는 공연이 펼쳐진다. 오는 30일 오후 3시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쳐지는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상임지휘자 권기원)이 펼치는 제141회 정기공연 ‘봄의 여행’이 그것.

공연은 유럽과 우리나라의 봄 노래를 재해석, 독일·이탈리아의 가곡과 동요 등을 합창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슈베르트의 ‘봄의 찬가’, 토스티곡 ‘4월’, 스칼라티 ‘제비꽃’ 등 ‘봄’을 소재로 한 편곡 하모니가 막을 연다. 바로크부터 낭만 시대 작곡가들이 저마다 달리 묘사한 ‘봄’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들여다 본다.

한국 동요 흥남과 곡 ‘고향의 봄’, 윤용하의 ‘나뭇잎 배’를 비롯해 ‘과수원길’, ‘나를 깨는 처녀’, ‘푸르다’, ‘고향땅’도 울려 퍼진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및 NS재즈밴드의 협연으로 동요를 국악·재즈 스타일로 편곡, 색다른 레퍼토리를 선사한다.

대미는 ‘봄’ 하면 떠오르는 버스커버스의 ‘벚꽃엔딩’을 시작으로 2008년 성남 창작동요제 대상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수상곡 ‘벚꽃팝콘’, ‘벚꽃여행’ 등으로 장식한다. 편곡에 성화정.

권기원 지휘자는 “소년 소녀들의 미성으로 듣는 세계 각국의 동요, 가요는 분주한 일상에 ‘작은 섬표’와 같은 힐링을 선사할 것”이라며 “화창한 봄날 ‘봄’을 주제로 한 멜로디와 화음을 가족들과 함께 감상해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은 1976년 창단,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을 비롯해 미국·프랑스·네덜란드·일본·중국 등 해외공연을 진행하며 광주광역시 청소년 음악문화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청소년단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활동할 수 있으며 매년 12월 신규단원을 모집한다.

전석 1만 원. 티켓링크 등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문학돌 올해의 작품상에 심진숙 시인 ‘바람의 집’

“모티브 ‘태목리’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 환기”

“담양에서 산 지 35년이 됐어요. 광주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담양사람이 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시의 모티브가 됐던 ‘태목리’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환기할 뿐 아니라, 유적지임에도 자연이 잘 보존된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심진숙 시인이 종합문예지 계간 ‘문학돌’ (발행인 송광룡)의 제2회 ‘문학돌 올해의 작품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바람의 집’이며 상금은 200만원.

심사위원들은 수상작에 대해 “하나의 상징으로부터 시공을 넘나드는 문학적 상상력을 거칠 것 없이, 그러면서도 세심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어루만지며 조곤조곤 전하는 독특함을 겸비한 작품”이라고 평했다.

이번 수상작은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이 모티브가 됐다. 이곳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으로, 마한 유적지에도 지정돼 보존이 잘 돼 있다.

심 시인은 “그곳에서는 대나무가 쇠뿔하고 살어나는 과정이 보였다. 특히 백로 서식지라 어미 백로가 새끼 백로를 하늘로 날려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생존을 위한 백로들의 모습, 비행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동물들의 생존, 생명들의 경이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진숙 시인

를 전했다. 문화원에 근무하다보니 자연과 인간이 교감하는 부분 등에 관심이 많다.

‘문학돌 올해의 작품상’은 계간 ‘문학돌’이 지역문학을 활성화하고 한국문학의 미래를 견인하기 위해 직전 1년 동안 계간 ‘문학돌’에 발표된 광주·전남지역 작가의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된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29일(오후 5시 30분), BHC치킨 광주금남로27번가점에서 열린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베토벤 첼로앨범 발매 기념 허정인 리사이틀

4월 5일 금호아트홀

베토벤 첼로곡들은 첼리스트 사이에서 ‘첼로계의 신약성서’로 불리곤 한다. ‘구약성서’로 불리는 바흐의 첼로 모음곡들과 함께, 베토벤 첼로 곡들이 클래식 음악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첼리스트 허정인이 4월 5일 오후 7시 30분 금호아트홀에서 리사이틀 ‘KREUTZER’를 연다. 이번 연주회는 세계적인 음반 레이블 소니 클래식에서 베토벤 첼로 전곡 음반을 발매한 기념으로 마련된다.

연주회는 첼로로 선보이는 크로이처 소나타와 3

개의 첼로 변주곡을 연주하는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중 “소녀 혹은 귀여운 아내를” 주제에 의한 12가지 변주곡 Op.66을 비롯해 “사랑을 느끼는 남자들” 주제에 의한 7가지 변주곡 E-Flat장조 WoO 46”을 들을 수 있다.

이 밖에도 헨델 오라토리오 ‘유다스 마카베우스’ 중 “보아라, 용사가 돌아온다” 주제에 의한 12가지 변주곡 G장조 WoO 45”,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A장조 Op.47 크로이처’를 카를 체르니가 첼로 버전으로 편곡한 작품도 관객들을 만난다.

허정인은 예원학교, 서울예고를 비롯해 서울대 음대,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석사과정 및 뷔츠부르



첼리스트 허정인

크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바흐 무반주 모음곡 ‘bach&dance’ 프로젝트, 첫 솔로앨범 ‘오마주 투 피아티고르스키’ 등을 발매했다.

피아노 연주는 성신여대 음대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며 하마마쓰 국제 피아노 콩쿠르(1위), 롱티보 크레스팽 콩쿠르(2위) 등을 석권한 일리아라 쉬코프스키가 맡는다.

전석 5만8000원. 인터파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제40회 무등미술대전’ 작품 공모...4월1일 접수

무등미술대전이 전국에서 활동하는 작가를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한다.

(사)광주·전남발전협의회는 참신하고 역량이 있는 화가를 발굴하기 위한 ‘제40회 무등미술대전’ 작품 전국 공모를 실시한다. 행사는 문체부, 광주시, 전남도가 후원한다.

올해 무등미술대전 공모는 한국화를 비롯해 문인화, 서양화, 수채화, 판화, 조각, 공예(금속·도자·목질·서각·섬유 및 기타), 서예(한글·한문·현대서예·멋글씨(캘리그래피)), 사진 등 9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출품자격은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출품할 수 있으며 순수 창작예술 및 국내외 미발

표 작품이면 응모가 가능하다. 단, 합동작품은 불가능하고 1인 작품만 가능하다.

접수는 다음달 1일 하루만 가능하다. 심사는 다음달 4일 진행되며, 수상작 발표는 같은 달 5일 광주·전남발전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시상식은 다음달 18일 오후 2시 광주시립미술관 비엔날레 전시실에서 열리며, 전시회 개막식은 같은 날 오후 2시 30분에 개최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전남발전협의회 사무처로 문의.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